

성도의 인사(고린도전서 1:1-3)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민족마다 인사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므로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독특한 인사법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안부를 묻거나 건강의 상태를 묻는 수준이 아닌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1)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불려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 가고 움직여 갑니다.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개인을 먼저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왕권통치를 위해 다윗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격들에게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오직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2)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과제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덕이 되는 삶으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많은 숫자의 성도와 헌금의 액수, 모인 성도의 생활의 수준 등을 교회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개교회의 달란트에 따라 풍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도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기준을 세워야 하고, 또한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공하고도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교회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서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한 교회의 목표를 설정하여 시대적인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인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있다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특권은 지나가는 말로서가 아닌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서로가 경쟁적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려오도록 해야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부려야 합니다. 때로는 비겁해 지기도 하고, 교활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아지는데 목적을 둡니다. 상대방이 더욱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심지어 자신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며 원수가 된 자에게조차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할 줄 알고 자신이 빚진 자임을 자각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만이 축복할 수 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고린도전서 1:4-9)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대신하여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대신 드린다는 의미는 마치 자식이 은혜를 입었을 때, 부모가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듯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 드렸을까요?

모든 말과 지식이 풍부함

어린아이가 말을 하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지식을 쌓아 가는 데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을 든다면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빠른 시일 내에 부흥시켜야 하고, 성경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번을 읽어야 하고, 은사도 하루 빨리 받아서 사역에 적용시켜야 하는 등 기다리는 일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심각해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를 만나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구원과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성도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나왔으니 나도 낫겠구나 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병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낫겠구나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지식을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없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을 말하십시오.

견고한 신앙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과 지식에 풍족한 자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의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지식을 쌓아 가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견고해 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건물은 많은 시간을 두고 건축합니다. 부실한 건물일수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인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한 양식을 섭취하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증거 하는 시간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을 보낼수록 점점 견고해져 갈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헤어내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열심과 노력 속에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매일의 묵상과 일용할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증거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은사

은사는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가? 성도들은 대부분 은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나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을 찾아 다니며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사를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산에서, 기도원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듯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난 것은 끊임없는 사역과 경건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과대 포장하여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은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 힘썼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선지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감추 줄 알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힘쓰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됨을 당당히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분쟁(고린도전서 1:10-17)

교회 안의 분쟁은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계속해 왔으며,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때는 수 백 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한국강산을 십자가로 물들일 정도였지만, 지금은 매년마다 수십, 수 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회의 빈부격차도 심해져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나칠 정도의 부귀를 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쟁의 결과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엄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할 줄 알며, 피차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항상 화목하고 우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남보다 못한 관계를 가지고 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 속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면 이단을 만난 듯이 경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무분별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살찌울 수 있고, 세계를 향한 선교비전을 심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만난 지도자는 그의 일생을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를 만났다면 독일의 패잔병이 되어 있을 것이고, 레닌을 만났다면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이고, 칸트를 만났다면 철학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목사를 만났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성경을 많이 보는 목사를 만났다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를 만났다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음전도자들에게 매료되어서 그들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파당을 일으키며,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성경과 설교에 능통했던 아볼로, 선교사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바울 등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지만 바울은 누구도 그들의 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들의 인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뿐이며, 그분은 교회의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있음을 분명히 해두었을 때, 신앙의 결실을 거두고,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

바울의 임무는 침례를 주어 자신의 영적 영역을 넓히려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도 그는 언제나 새로운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쁘다는 메시지를 언제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고린도전서 1:18-25)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죄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들의 위치를 확실히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도

불신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했던 유대인에게는 실망스러운 존재였고, 삶의 의미를 찾아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앗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독일에 정신적인 영웅이었던 히틀러가 그랬고, 왕을 구했던 시기에 나타난 사울 왕이 그랬듯이 인간이 바라는 지도자의 결말은 언제나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죽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다함으로 세상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있는 한가지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의 기준에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백분지 일이라도 안다면 훌륭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분지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는 강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후의 세계는 관심이 없고 현실의 문제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접어두고 하나님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실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으로 깊은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 명예, 권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됨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삶(고린도전서 1:26-31)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승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 일에 실패할 뿐 아니라,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있다고 하는 자

세상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을 필요조차 없고, 오직 의지할 것이 있다면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에 상황에 이르면 쉽게 좌절하고, 삶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 '왜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고 비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돌보는데 더욱 헌신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비교적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식인들은 그들의 사업을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없는 자

지혜롭고 가진 것이 있는 자들과는 달리 미련하고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조차 가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사람들이 바라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심한 열등감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항상 남에게 있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자그마한 영향력이라도 있어지기를 바라며, 설령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개성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출세나 명예욕에 있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이와 같이 세상에는 지혜롭다 하는 자와 미련한 자, 가진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지혜롭고 있는 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없는 자들이 더욱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가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살 수 없다면 그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실패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지 않는 이유는 인생을 황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선호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고린도전서 2:1-5)

교회의 최대과제는 언제나 전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교회성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성도를 교육시키는데 힘을 기울입니다. 불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열정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는 말하는데 있어서 그리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지식에 충분히 감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전도에 자신의 능력을 감추려고 했던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자들이 전도를 더욱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주도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고, 전도의 열정이 불타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과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시켜 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음을 생각게 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복음을 증거 한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증거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변질되어 간다면 이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강연장일 수 없습니다. 도덕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아니며, 구제를 위한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이 일들이 부수적으로 있어질 수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들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유일한 한가지 방법을 계획하셨고, 이는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었고,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가 증거 해야 할 유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거나, 듣는 자가 지혜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는 상대방이 믿지 않으려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도자라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전도자에게서도, 듣는 자에게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희망은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도 빈번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린도전서 2:6-11)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박았고, 결국에는 제자들마저도 이 일에 대하여 스스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성경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 없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0000 년 00 월 00 일에 오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교묘하여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짜에 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숨길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많은 대언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관원들에게는 알게 할 수 없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음을 대언자 이사야는 증거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들은 자가 없으며 귀로 깨달은 자도 없으며 눈이 본 적도 없었나이다"(사 64:4)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조금의 오차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통하여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백성이 고난 중에 있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더욱 큰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훈련장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계획을 시대 속에 선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위로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전도자는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함께 자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고린도전서 2:12-16)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비교적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영적인 것, 그 자체가 마치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우리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쯤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 즉 성령에 관하여는 성도들이 인식해야 하고, 또한 삶 속에 체질화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그 생각의 범위는 거의 비등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함으로 영은 죽고 말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아담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대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사형을 면할 수 없음 같이, 죽음을 선고 받은 죄인 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하시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모든 인간들이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 갔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뒤에는 이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영을 보냄으로써 계획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지속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면 백성의 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을 주며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령한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안위와 정욕을 추구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세상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능력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논하려 든다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고린도전서 3:1-9)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행동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서 삶을 지속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듯이 그리스도안에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가정 안에서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자랍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혹시라도 눈에서 벗어날까 봐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어머니에게로부터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시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떨어지면 죽는 것 인양 마구 울어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기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이 젖은 어머니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땅히 젖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양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사역자는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도는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는 의무감을 가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역할

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다르듯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각기 은사대로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는 모든 성도가 자기와 닮은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사역자의 이러한 요구가 영적 삶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6)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각기 은사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지만 가나안에 입성시킨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입니다. 사울에 의해 왕권시대가 열렸지만 다윗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지만 바울에 의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적재적소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능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어진 은사의 범위에 따라 적절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계발하여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열심이, 어떤 이에게는 결실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경건한 삶이 상급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급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저마다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8)고 말합니다. 은사 중에는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결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며, 경건의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인격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가 현재 있는 환경과 지식의 정도, 활동의 범위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상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급은 남의 행동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 속에서 활동하시는 주님과와의 관계 속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고린도전서 3:10-15)

집을 짓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어느 땅 위에 집을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반이 부실한 땅 위에 집을 짓게 된다면 그 집은 언제나 붕괴의 위험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정돈된 땅 위에 짓는다면 건축자의 요구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집이 어떤 토양 위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땅에서 건축을 시작할 것인가?

모든 건축의 시작은 지질검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실한 땅 위에서는 높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 땅 위에는 천막밖에 지을 수 없고, 숲이 우거진 곳에는 단층 이상 지어지는 안되며, 물이나 늪지대에는 목재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위에는 어떠한 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자의 능력과 정성에 따라서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각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토양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정욕 등이 우리 주변에 있는 토양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집을 지어가기에는 너무도 부실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위에 집을 짓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명예를 찾고, 명예를 찾다 보면 다시 권세를 찾는 등 한마디로 만족할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터를 닦아 두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간다면 어떠한 견고한 집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불가운데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터는 다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그 위에는 우리의 인격 외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은 아직도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삶의 환경에 의하여 영적인 갈등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의 재료로는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짚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다시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구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짚으로 집을 짓게 되면 매년이나 아니면 수년에 한 번씩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에 태워졌을 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지만,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도 세상에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구분한다면 대부분의 보이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남아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심판을 받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자

세상의 심판은 불로서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영원히 멸망 받지 않을 것으로 무장한 자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며, 없어질 것으로 무장했다면 그는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있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공력을 쏟아가고 있다면 그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고린도전서 3:16,17)

성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전자의 교회로 외형적인 규모에 의하여 평가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격들이 모여서 진정한 교회의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건물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하여 매우 가볍게 보아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쓸모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을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일정한 틀 안에서 성도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무시하고 재능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외형적인 성전의 필요에 맞는 재능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로 중증장애인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한 후 감격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삶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기 까닭에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 하시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섬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의 문제점은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인가 쫓기듯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속을 드러다 본다면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추구 -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에게는 이 거룩한 삶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속성은 우리의 더럽혀진 내면의 세계를 청소하는 작업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더럽혀진 내면으로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1-5)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 될수록 지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판단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식을 쌓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학문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판단이 온전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세상의 지식은 시대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이 신학 안에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도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고 모든 의학과 경제학도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생각을 하면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이가 덧셈, 뺄셈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초등학문을 마친 고등학생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수를 이용하여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힘 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비밀의 깊이를 더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일을 맡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불러 비밀스럽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신하가 심부름은 하지 않고 판전만 피우고 판 생각만을 하고 있다면 임금은 노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말씀하시고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은밀한 중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단이 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판단을 유보하셨습니다. 가령 유대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충성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하소연(고린도전서 4:6-13)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는 사역의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쫓겨 났고,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에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고, 그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된 고린도를 복음화 시켰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보다 더욱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마친 후 고린도를 떠나고 이 후에 아굴라와 베드로가 다녀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사역을 했던 바울로서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소연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역

사역자의 자세는 뛰어난 외모나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데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면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사역자가 본을 보이는 행위는 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은 결코 사역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교육의 결실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고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본을 보이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이야말로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왜 대적하려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이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과 땀으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좀처럼 분개하지 않던 바울은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하소연을 합니다. 배반을 당하는 아픔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 일들은 비단 바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더욱이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배반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반은 단순히 사역자를 떠나는 일에 국한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급기야는 사역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형태로 봐서 사단의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요 일이라고 하면서 고통을 주지만 실상은 사단의 조정을 받아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대적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든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의 수모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표현한대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에 비하여 많은 수모를 겪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수없이 많이 사역의 중단을 요구 받습니다. 그들은 물질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중단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주는 수모와 배반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실로 사역자들에게는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적 삶을 살며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큰 상처를 내고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치유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고린도전서 4:14-2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을 매듭짓고자 하는 심정으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글을 이어가면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해 하기도 하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인에 대한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가정의 가장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았고, 바울 자신은 그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바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성끼리 결혼하여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두 번 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항상 불안합니다. 또한 항상 주위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움츠리고 삽니다. 이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하여 돈, 명예, 권세, 지식 등을 얻어보지만 오히려 허전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을 공급할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딘가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 때 스승과 제자로서의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가 스승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승은 많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특별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녀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은 학교와 같은 교육단위가 아닌 사랑이 있는 가정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

교회는 언제나 많은 말이 오가는 곳입니다. 마치 말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대부분이 쉽게 유혹을 당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일에 관하여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판단만으로는 믿음의 정도를 말할 수 없으며, 성도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음행에 관하여(고린도전서 5:1-8)

바울은 지금까지 서신을 써야만 했던 이유 중 하나인 분쟁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가르침으로 자신을 본 받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그들의 문제는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도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항구도시로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곤 바로 도시로 내려와 창녀로 변하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아들보다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이 일을 당하여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음행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

근친상간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때 롯은 자신을 두 딸을 그들에게 범하라고 내보냅니다. 여기서 롯의 순결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희박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의 멸망 때 두 딸과 함께 도망을 하고 두 딸은 자고 있는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까지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결국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민족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헤롯왕 역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므로 평생 죄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죄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자들이 저지르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위험성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서건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음행 하는 자에 대한 경계

음행 하는 것들은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타락을 부추이는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가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르노 비디오와 잡지 등을 통하여 음행 하는 일들을 자극하며, 섹스와 마약 등을 통하여 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수 십 세기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여 가고, 많은 것들이 도태되어 없어졌지만 음행에 관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가령 한편의 영화를 관람을 하다 보면 이성간의 잘못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면 왠지 싱거운 느낌을 줄 정도로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무감각 한 채로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타락된 문화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은

그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장소로 만든다면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음행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침범해 오면 어느 순간 교회는 음행의 장소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악한 것은 언제나 금세 번져갑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 오면 욕이나 비속어는 금방 배워 오지만 아름다운 말을 배워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말을 배우는 곳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음행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귄에 관하여(고린도전서 5:9-13)

음행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바울은 사귄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 하거나, 탐욕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귄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며 사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효과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목사가 술주정뱅이들과 둘러앉아서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역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좋은 사귄을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사귄

바울이 한 가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 취함, 토색 등이 체질화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마저 하지 못하도록 놔둔다면 그들은 아마도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의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죄 속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귀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사귀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사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죄 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의 사귄

바울은 사귄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하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귄을 나눌 수 있지만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은 사귄을 가질만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묵은 누룩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기 때문에 교회 안을 타락시킬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술자리에서 "00 교회 00 집사도 술을 잘 마시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술을 권해 받기도 합니다. 어떤 대담한 이는 "나도 00 교회 집사야.." 하면서 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악독한 누룩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자칫 자신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에 월권을 행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죄 여부를 우리가 결론지으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울타리에 가둬놓고 사람들과 사귄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귄을 가지지 못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사단의 울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만들었던 울타리를 제거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송에 관하여(고린도전서 6:1-11)

오늘날의 교회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들끼리 서로 자기의 이권을 얻기 위하여 다투고, 성도들끼리 서로 양보하지를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온갖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송에 관한 바울의 입장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모습으로 영적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대부분이 세상의 지혜 있다 하는 이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소송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법을 더욱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묻혀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배에 한 번 빠지는 것보다 교통위반에 걸려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것을 더욱 겁냅니다. 또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남의 돈을 떼어먹는 것이 더욱 큰 범죄라고 여깁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지 못한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모든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재판하면서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신은 이 정도도 해결할 수 없느냐"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하고 속아 버리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피해는 대부분이 보통의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의 정도와는 차이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우리는 찾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차라리 당하고 속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소송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송은커녕 오히려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더욱 적극적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불의에 대하여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상을 낱알이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소송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죄과만 더욱 가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송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의인은 없다는 진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당하고 속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쫓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고민을 거듭하지만 해결책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불의한 일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이 일들을 수습하는 지혜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에 주관자이십니다.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2-20)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이 음행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이 헤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덩이로 우리를 몰아내고, 추악한 행태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음행이 우리를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지만 육신은 하나의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도둑이 살고 있다면 그 안은 교도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환자로 들끓고 있고, 각종 다이어트 식품이 난무하고, 에어로빅 등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각종 스포츠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추구는 외모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그네요, 풀의 꽃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집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집이 항상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육신의 집도 항상 우리의 것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흙이 되어 식물의 양분이 되어 썩을 돈우고 이 식물을 다시 사람들이 섭취하게 됨으로 그들의 육신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집과 같은 것이지만 그 집에 사는 주인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인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가에 따라서 집은 가꾸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가꾸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질로 다스려지고 있다면 육신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지속적인 간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의 잡초를 뽑듯이 우리의 인격에 쓸모 없는 것들을 제거해 갈 것이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듯이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주인을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소유주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소유주는 정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을 영생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광을 돌리며 안식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부의 도(고린도전서 7:1-7)

바울은 지금까지 생활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음행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부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성적으로 개방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성행하여 교회의 문란을 조장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순결하지 못한 삶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건강한 부부 생활에 있습니다. 부부의 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부부

바울은 음행을 막는 최적의 수단이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결혼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피차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4)고 말함으로써 부부는 피차 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피차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말하고 행동하며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생활은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한 애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행의 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 됨을 피하려 한다면 점차 애정에 결핍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음행에 대한 죄의 유혹은 거세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항상 위기의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도 부부간의 관계를 제대로 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이혼 사유가 고부간의 갈등, 예물 문제, 성격 차이 등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부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 모든 사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차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한 방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해 간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서로를 알게 되며 행복한 삶의 비결들을 터득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분방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

부부관계는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하면 아비 집을 떠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아비였던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결혼하였고 이제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종 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친히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결한 삶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음행은 용서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부부의 도 2 (고린도전서 7:8-16)

가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이 단위 중에서도 부부는 그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기둥과 같습니다. 만일 한 가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이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부실한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가 그 가정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는가? 평안한가? 하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요, 자녀들은 이들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더불어 행복해 지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느 것보다도 순결한 부부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는 이유를 역설하는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는 이유

바울은 혼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혼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있다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이 단순히 정욕만을 위한 것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다 확신 있는 말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 정욕에 대하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히 터득하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같이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을 시키면 정상적인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결혼은 이성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갈리지 말고, 남편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활동범위가 넓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열려서 이혼의 유혹을 더욱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혼에 관하여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재혼을 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함께 거룩해 질 것이므로 인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을 포기하는 행동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화평 중에 부르심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욕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정욕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여 부부관계를 피하려 한다면 이는 주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부가 가장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믿지 않는 자들이면 그들의 삶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차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화평을 되찾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내라(고린도전서 7:17-24)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해 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 가운데도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최고의 경쟁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인생을 비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집단으로 변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관망하고 박수를 치는 관객쯤으로 전략해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화평을 이루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빵과 명예와 지식에 있지 않고 자유한 백성임을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오직 계명을 지키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전혀 생소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부딪치는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성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로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할례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19) 제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면 따를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현대인에게 있어서 변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도 변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인도와는 관계없이 먼저 술과 담배를 끊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넘어지고 끝까지 견디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고 다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름을 부은 것은 양을 치고 있었던 지저분한 모습의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 우상 조각을 깎고 있었던 아브라함 등 그들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과 교양의 정도에 우리의 신앙을 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이는 행동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돈을 벌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종의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이는 더욱 큰 행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여십시오.

혼자 지내는 것(고린도전서 7:25-40)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피차 중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권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혼탁한 결혼관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적 삶을 사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결혼하지 아니한 까닭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독신으로 지내는 자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영적 삶을 사는데 있어서 유익함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고린도라고 하는 무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삶이 매인 사람들

바울은 이미 부부는 서로가 종이 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영적 삶이 흐트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서원한 시기가 대부분 청년시절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줍니다. 여자에게는 더욱 심각해서 '여자는 결혼을 해 봐야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누어진 마음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며, 세상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최소한의 염려 속에서 지내야 하는데 이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염려한다면 얼마나 영적 삶에 풍성함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이 아내, 혹은 남편이나 자녀, 그리고 세상에 빼앗겨 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야망까지 가세한다면 도저히 영적 삶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지상주의를 외칩니다. 결혼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결혼은 결코 영적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혼은 죄가 아니다

결혼이 비록 영적 삶을 사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식입니다. 주님도 결혼의 비유를 통해 자신을 말씀하셨고, 독신을 외치는 조차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이 죄가 될 수 없음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영적 삶을 사는데 방해요인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영적 삶에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가정은 더 없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제물(고린도전서 8:1-13)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령 무당이 굿을 하고 남은 음식은 맛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와서 음식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은 음식을 상위에 올려놓고 한참 굿판을 벌이기 때문에 밥과 국이 다 식고 과일은 위 아래를 꺾아서 점차 맛이 변해진 것인데도 귀신 때문에 맛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은 무당만이 먹을 수 있고, 집에서 드리는 제사 음식은 집안의 장손이 먹어야 아무런 탈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 제사음식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가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

고린도 사람들의 주식이 각종 고기였다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이미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꺼림직 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숭배로 비쳐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민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게는 영적 삶에 혼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답을 통하여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잡고 생활의 균형도 잃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문제를 통하여 영적인 생활에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명쾌한 해답을 얻고 그때 그때마다 바로잡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강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각종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들이 절을 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가 섬길 대상은 없으며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앞에 놓여진 제물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물론 절을 하고 있는 그는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우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제물에 대한 편견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하시니라" 로 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는 분명 세상의 물질세계에 곧 굴복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서의 자유

우리는 혐오 식품을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쾌하고 심지어 야만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무수한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가령 우리가 비 그리스도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이는 복음을 전하는데 역행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해로우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피조물을 취한 것이므로 영적으로 갈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함(고린도전서 9:1-14)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제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말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당한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바울의 사역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의 행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포기할 때마다 혹시 자신만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어떠한 생각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당한 특권-사도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명예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과연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가 다니는 어떤 장소에서도 알아주는 이 없이 외로운 개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보다도 더욱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신이 직접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서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시오'가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역은 명예를 위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가 얻는 것

일하는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병정이나, 농부나, 목자 등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가 일을 함으로 양식을 얻어먹듯이 사도가 영적인 일을 함으로 그 유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으로 도움을 입어 축복을 받았다면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취하듯이 영적 일을 하면서 양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지시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마 10:10)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이유들로 자신에게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사역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신에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강요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초대교회에 앞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에게 존경 받거나 대접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의 집과 자가용은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바울이라면 이것들을 당장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들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고린도전서 9:15,16)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물질이나 명예, 권세에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에 대하여 결국 회의적인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역사에 수많은 권력자들과 재력가들,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왕자였던 석가가 세상에 낙이 없음을 한탄하며 산으로 향했고, 소크라테스가 그의 철학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감옥에서 외로이 죽었고,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부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되다'고 외치면서 후손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같이 불행해지지 말 것을 권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항변

바울은 자신이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들이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할뿐더러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에도 어느 교회로부터도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로부터 서로 위로하고 권고함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신을 보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줄 것을 권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

바울은 대부분의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명예로운 가문 출신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웅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지나친 영웅 만들기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삶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들을 지나친 영웅으로 만들어 그들의 경건의 삶에 재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바울은 자신이 사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누차 강조하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책임감을 역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공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무관하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으로 상급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입장에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가진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고린도전서 9:17-23)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된 채 외면을 당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그마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고, 어떤 이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죽었고, 어떤 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과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삶 속에는 권리의 포기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

바울은 어느 곳을 가나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충분한 배경과 학문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과 학문이 영적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고민했고, 자신의 배경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낮추기 위해 사도라 불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이 증거 되는 곳이라면 서슴없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겠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리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권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매우 사소한 문제도 크게 확대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목사가 사례비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 자기 집 옆에 교회가 건축된다고 집에 피해가 가므로 보상을 받아 내는 일, 소위 넘비현상이라고 말하는 일 가운데 자기 동네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일, 전 국민의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소라도 자기 마을에서만은 건립할 수 없다는 일,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권리 찾기에 나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상식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이라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산 제물로 드려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후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하고 사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은 결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큰소리 칠 수 없습니다. 손님은 사기 싶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삶 (고린도전서 9:24-27)

오늘의 올림픽과 유사한 운동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운동경기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삶을 운동경기에 비유하여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운동경기든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가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최고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훈련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일순간에 소위 말하는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운동경기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는 절대로 일순간에 '스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피와 땀방울이 있으며, 많은 시간을 번민하며 포기를 생각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 바로 이 운동선수와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자신은 이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복종시키며 살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고가 되기 위해

진정한 최고는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담함을 해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 길은 오직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 그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연습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계속되어야 하면 하루도 쉬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의 경건의 삶을 연습함으로써 최고의 순간을 위해 줄달음을 쳐야 할 것입니다. 영적 삶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운동경기에서 약물이나 담함에 의해 최고를 만든 자에게 혹독한 벌이 가해지듯이 영적 삶을 과정 없이 뛰어넘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할 때,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훈련법

운동선수는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훈련법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지속해 가야 합니다. 가령 볼링을 치는 사람이 기본 동작을 익히지 않고 무작정 던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피나는 연습을 해도 그는 손가락에 피멍이 들것이고, 매일 허리 디스크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에도 기본동작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다듬어 질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체력훈련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기초하지 않고는 영적 삶의 훈련에 더욱 큰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기초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일에 기초하여 끊임없는 절제생활과 영적 방향을 설정하여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자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운동선수에게는 반드시 그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그 지도자의 말에 따라 훈련했을 때 최고의 자리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혼자 훈련하는 느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안락한 생활이 그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 지도자의 말을 경청했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깨우고 있었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영적 삶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는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적 지도자를 갖고 있고, 고독 속에서 자율적인 연습을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고린도전서 10:1-13)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을 사는 성도 개인의 역사와 흡사합니다. 즉 그들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민족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의 성도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던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역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성찬에 임하며, 십일조를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외적인데 있지 않고 내면적인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멸망 받을 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노엽게 하는 죄가 있는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루에 이만 삼 천명이 죽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이 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지만 위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위의 죄에 대하여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여지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자리잡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도 치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하여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김으로 홍해를 불어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그들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지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분의 자녀들을 결코 좌시하고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 손을 벌려 안으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14-22)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 얻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우상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경계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고, 구제의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식으로 만든 것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은 매우 약식으로 진행되어 조그마한 빵 조각과 작은 잔에 담겨 있는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예식을 대신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주안에서의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자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만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자리하셔서 대화를 축복하시고, 기쁨의 자리를 만드시고 계시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이 함께 해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대화 속에 절망을 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말합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절망적인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들의 인생을 절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을 하는 사람 중에 희망적인 사람이 없고, 희망적인 얼굴로 세상을 사는 무당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망할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때사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가 이 일에만큼은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사탄과의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사고 방식인 운명주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낫을 피해 숨었듯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의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도 취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지 않으시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도 많은 미신적인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일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주변에 존재해 있는 미신적인 요인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칙 (고린도전서 10:23-33)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논해온 것에 대하여 결론을 지으면서 시장에서 판 음식, 즉 상품화 된 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불신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관계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일부러 말하는 자가 있다면 가르쳐 준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의식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렵거나,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손상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우리는 더욱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 사용

바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울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죄 값을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그는 머지않아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가지는 또 다른 의무는 남을 의식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표현으로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를 남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남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개인주의에 팽배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풍성한 생애를 보장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웃을 돌아보는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학대하고, 경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남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 까닭은 성도들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세상적인데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31)고 말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면 결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일

바울이 강조하는 삶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결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줌으로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델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고도 삶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개인주의에 팽배해 있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죽어져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표와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머릿수건(고린도전서 11:1-16)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릿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따라 기도를 할 때에는 남녀간에 수건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고(민 5:11-31), 헬라인들은 쓰지 않았으며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거나 수건을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것은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지 않거나 다른 남성을 유혹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남자, 그리고 여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지위를 놓고 남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기시킴으로 교회의 균형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머릿수건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여자를 종 부리듯 마구 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매우 의존적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머리 수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여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서로를 위해' 지어졌으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남자의 위에도 머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는 그 인격이 차별 없이 동등하며, 여자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듯이, 남자도 자기의 위치를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과 해결책

바울은 머릿수건의 문제를 보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릿수건은 보이는 자에게 대한 순복의 표시이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신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머릿수건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머릿수건을 한다면 보이는 어떤 이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머리가 남자이므로 남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머릿수건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릿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에게 대한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남자에 대한 거부와 혹은 다른 남자에게 대한 유혹의 의미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자에게만 머릿수건을 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즉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상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는 여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머릿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머릿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자 했다면 그는 율법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질서 없는 생활과 여자들의 분수를 잃은 행동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피차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생활을 피차에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이 일은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만찬이 주는 교훈(고린도전서 11:17-34)

바울은 머릿수건 문제에 이어 만찬에 관하여 그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애찬을 나누며 아울러 만찬을 겸했는데 이 때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식사 중에나, 혹은 식사가 끝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유한 성도에게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배부르도록 먹고 취하도록 마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배를 움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찬을 나누고, 모두가 만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만 그들은 사랑해야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분쟁만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찬의 기본적인 의의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찬의 의미

본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계약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의 죽으심을 증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로서 하나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기도 하며, 혼인잔치의 예비적인 것으로 미리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만찬이 매우 형식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찬에 임하는 자세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주님의 만찬이 아닌 자기만의 만찬이 되게 하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만찬은 먼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예식이므로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축제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 됨을 인정하며, 만찬을 통하여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찬을 성도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과 같이 자신만을 위한 성찬을 한다면 결국 만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는 결국 자기가 포기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삶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보다 남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찬을 범하는 자

만찬이 거룩한 예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임한다면 이는 곧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행위가 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곧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며, 만찬이 본래는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엄청난 일을 행하지만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만찬이 우리의 단순한 육체적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율법적인 시각에서 만찬을 바라보는 행동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성도간에 형제 됨을 깨닫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삶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찬은 비록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예식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은사 분별의 원칙(고린도전서 12:1-3)

은사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역할에 비하여 항상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은사문제는 항상 많은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교회의 분쟁이나 분열을 가져다 준 이들의 대다수가 은사주의(신비주의)자들이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많은 신자들이 이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의 중요성

어느 것이든지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원칙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훌륭한 영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주일 성수, 십일조, 전도, 봉사의 생활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사람을 얻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행실은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무시하고 뛰어 넘으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학생이 숫자를 배우지 않고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답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력은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의 원칙

은사를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방언으로 역사하셨지만, 어느 시대에는 병 고침의 은사로, 어느 시대에는 환상으로, 또 다른 시대에는 믿음으로 역사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가 예수를 주로 알고 모시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은사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은사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혹은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 되고 있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은사를 받은 자처럼 보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이단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참으로, 참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자

은사는 성령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역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하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자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도 원칙에 벗어나는 삶을 산다면 심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성령을 통한 것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다양성 (고린도전서 12:4-11)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가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은사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만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즉 문둥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로 오 천명을 먹이시는 일 등은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자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경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정죄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은사

은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은사들은 이보다도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의 종류를 바울이 말한 은사의 종류로 제한하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 다양한 은사들이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은사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은사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는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치를 보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

은사는 성령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치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목사와 성도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거리나 전시물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을 일을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헌신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닌 봉사의 직분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지체 (고린도전서 12:12-27)

은사는 한 성령에서부터 왔으며, 그 나타나는 형태는 여러 가지임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음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사람의 몸을 통하여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기능이 다양하듯이 은사도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몸이 서로간에 유익을 주듯이 은사도 성도들간에 유익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몸의 모든 기능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일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듯이 성도가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다면 전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지혜와 성도간에 서로가 한 몸 됨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

몸의 구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곳, 보는 곳, 먹는 곳, 집거나 잡는 곳, 걷는 곳,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분해하여 공급하고 배설하는 곳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하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만일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전체 몸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몸은 상호간에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로 보완의 관계를 갖습니다. 몸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듯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아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몸은 키가 크고, 얼굴에 개성이 뚜렷하며, 늘씬한 몸매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심지어 지나친 다이어트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게으르며,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며,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운 몸의 개념은 곧 건강한 몸을 의미합니다. 몸의 각선티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아름다운 몸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모인 무리의 빈부와 학력의 수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모인 무리의 수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도, 빈부의 차이에도, 지적 수준에도, 수적인데도 그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몸이 균형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준을 삼을 수 있듯이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가에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비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는 대부분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가르침으로, 어떤 이는 병 고침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맡은 은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자신과 같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자기보다 낫다고 해서 시기하는 행위는 영적 질서를 전혀 모르는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맡은 고유한 은사를 공급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하여 은사를 나누는 삶을 살며, 또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28-31)

은사가 은혜와 다른 것은 은혜는 구원을 위해 주어지지만 은사는 봉사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은사는 각자에게 서로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끊임없이 봉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까닭에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전혀 교회에 유익을 줄 만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은사를 구하고 있다면 은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에게 은사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은사를 구하고 있다면 그는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선 마술사 시몬과 같이 말입니다.

세움 받은 자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이름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직이 있을 때만이 혼란스럽지 않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직에서 한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선지자, 교사를 앞에 두고 능력, 병 고침, 돕는 것, 다스리는 것, 타 언어(방언)를 하는 것 등 표적과 행위 중심의 은사들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표적이 앞에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것은 뒤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아직도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배우는 것을 멈추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가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즐거워하듯이 어릴 적 신앙은 표적을 보고 즐거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듯이 은사도 고르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 영향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많은 능력과 기적, 병 고침의 능력을

배풀었지만 말년에는 주로 말씀 사역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사역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잘 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타 언어(방언)를 못 하는 목사, 설교를 더듬거리는 목사, 기도를 오래하지 못하는 목사 등 사역 자들조차도 취약한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성장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또한 관련 서적과 잡지는 언제나 베스트 셀러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원칙은 그들의 방법이 원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며, 성도들 역시 사역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를 알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은사를 사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봉사 직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책망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끊임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며, 주인과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받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은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힘쓰는 성도라면 당연히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일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중요성 (고린도전서 13:1-3)

바울은 앞에서 은사에 관하여 열거하면서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은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며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는 성도의 영적 삶에 확신과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의해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흥분을 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곧 약기가 있는데 그 약기가 약기를 다룰 줄 아는 자의 손에 들려지지 않고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자에 의해 연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기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타 언어와 천사의 말은 곧 허공에 외쳐대는 소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언,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앎

금세기 들어 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4 차원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가 올 세상에 대하여 전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지만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제시를 해놓고 답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우리의 처소가 예비 되었으며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

믿음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믿음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세월을 보낼 때는 믿음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생활과 안정된 삶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더욱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범위가 난무하고, 성도를 유혹하며, 죄악의 세력이 교회에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원수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는 일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의 죄악과 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싸워 이기는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꾸어 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와 희생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상이 쌓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의 상이 큼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사랑'에 기초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들이 단순한 동정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발단이 되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서원하고 예물을 드렸고, 결국 약속된 재산을 모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드러지는 구제와 희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사랑의 의미 (고린도전서 13:4-7)

바울은 이미 사랑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해 주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완성시켜 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과는 그 의미를 달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친절(온유)하며

현대인의 살아가는 조건 중에 필수적인 것 한가지는 확실한 자기 주장을 펴는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다소 감정적이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진실 된 삶의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메마른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한 사랑 법을 제시합니다. 매사에 참고, 모든 일에 대하여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거나 고통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친절을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기(투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시기(투기)라는 말은 지나친 자기 우월감으로 남의 나은 점을 낮추려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하는 행동들은 언제나 지나친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오는 행동들입니다. 사랑을 한다 함은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됨을 의미하며, 더욱 발전된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에 대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시기(투기), 자랑, 교만, 무례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말은 절대로 이기주의 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음을 의미하고,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절대로 감정에 사로잡혀 흥분된 자세에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자신이 당한 불이익에 대하여 돌이켜서 생각지 아니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할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는 순간에까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며, 제자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도록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면서 '사랑을 하자'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 부자청년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듯이 희생 속에 진정한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세상의 모든 삶의 원칙이 역경이 없으면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성도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고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낙심하지 않으며,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삶을 추구해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사는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가지 이 사실의 눈을 열어 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고린도전서 13:8-11)

사랑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가? 또한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제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영원하다는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봄

지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므로 얼굴을 마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성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각종 기적 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러한 은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급에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며,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판단 기준은 바로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은사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병자에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건강해진 이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간증을 하며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무기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은사이든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사역들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하나님 편에서 극히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주신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온 사방을 자랑하며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신 것은 공부를 하라고 사 주신 것인데 아들은 그것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익하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는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연필 한 자루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장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써야 하고 더 이상 몽당연필이 되어서 쓰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그에게 장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입니다. 더욱 큰 것을 사모합시다.

제일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나 내세를 막론하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실제로 사랑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요구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전 과정에 있어서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4:1-5)

바울은 이미 13 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본문에서 다시 한 번 사랑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타 언어(방언)와 대언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구해야 할 사랑

우리는 사랑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자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랑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하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온유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도 많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 원칙

우리는 T.V 를 보면서 슬픈 드라마가 나오면 곧 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성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사랑에 눈을 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칙은 하나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보다도 오랜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 해온 부부들의 사랑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끝없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대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유익함

바울은 모두가 타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언어를 말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 믿는 증거로 타 언어의 은사를 받았고, 바울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의 개인주의적이고 파벌주의적인 가운데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금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 언어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대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사람을 교훈하며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교회의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나만 구원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므로, 즉 구원이 보장되었으므로 내 주변은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타 언어를 말하는 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부족한 은사를 가진 자가 다섯 마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가진 은사들을 최대한 살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4:6-19)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몸이 하나로 엮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으로서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듣는 말을 하라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은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부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외워대고, 불교의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워대고, 유교에도 연사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제사상 앞에서 낭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교훈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 한마디보다는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허공에 말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잠긴 듯 하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자가 신령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도 신령한 자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시력이 나쁘고, 체구가 다소 작은 자임을 고백한 사실만을 보아도 능력과 외형적인 모습과는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냥 외치는 데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지도하는데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외쳐대는 일을 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비단 열심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혀 쓰지 못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영적 성장이 없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면서 열심만을 더해 가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을 통하여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큰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곧 더욱 큰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에만 욕심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그는 곧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이 능력은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에만 열중하느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 이 땅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경건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덕을 세우라

바울은 일 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는 의미는 곧 덕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금장식을 하고 있더라도 덕을 세우는 일을

마다하고 자신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한다면 그들은 결국 사교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자신들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다투지 않으며, 존경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경건의 삶으로 무장하여서 무지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모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십시오.

지혜로운 말 (고린도전서 14:20-25)

바울은 지속적으로 타 언어보다 대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언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말이라는 것은 곧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타 언어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타 언어로 말하기보다는 한마디 가르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지혜에 장성한 자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를 미혹하는 각종 이단과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장성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황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금방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다가오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세로 범사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의 한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수 없이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결국 이적을 본 무리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은사는 사역에 힘을 더해 주지만 사역의 근본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은사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타 언어는 복음전도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타 언어를 말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지역적인 상황이 워낙 다양한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복음 전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피차에 타 언어만을 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타 언어조차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피차에 교제를 나누며 많은 교훈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화하고 있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언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나눌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올바른 말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지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언은 초신자나 장성한 신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타 언어의 은사보다 덜 신비롭게 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은사의 최종적인 역할은 효과적인 복음사역에 있습니다. 아무리 일 만 마디의 타 언어를 말한단 할지라도 복음전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면 어느 것보다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며 거둬들이지 못한 자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타 언어보다는 예언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제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로 매사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는 생활(고린도전서 14:26-33)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서 타 언어보다 대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선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르치겠다고 나서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 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구실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질서 있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조차도 어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묵혀져 있거나, 자신의 자랑함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면 은사의 본래 의도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또한 성도와 더불어 쓰여져야 합니다. 어떠한 은사이든지 독불장군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임에 있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듯이 각종 은사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성도들과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면 유익하게 쓰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그가 그의 백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을 과신하게 되었을 때, 그의

힘은 데릴라와 동침하는 정욕으로 밖에 쓰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힘은 스스로를 절망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성도들과 더불어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결국 스스로 울무에 빠져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은사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에서 협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역시 협력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뒤로하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안정되고,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안디옥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를 개척했던 자들은 사도들과 집사들이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역자들이 방대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떠난 후 교회의 변질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또한 마땅한 후임자를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안락한 생활과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사역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날에 서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특성에 맞게 성도들이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리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목사를 찾아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고, 전도를 잘하는 성도는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를 찾아가고, 부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는 축복을 강조하는 목사를 찾아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는 성도가 절대로 구경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와 더불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도가 할 수 있다면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목사가 만능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일은 질서대로 하라

우리의 몸이 균형 있게 움직일 때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지체 장애자일 것입니다. 중증장애(뇌성마비) 환자들도 온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뇌의 조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의 좋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움직인다면 그는 장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제된 생활과 균형 있는 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듯이 교회 안에서 전 성도가 절제된 생활과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과 봉사의 생활, 그리고 교제함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하고 질서 있게 (고린도전서 14:34-40)

바울은 이미 가르침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지혜롭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분쟁을 막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리

오늘날의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도 주로 남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자가 많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히 여성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의 지위를 놓고 남자들과 경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공적인 집회에 관한 지도를 하면서, 그러한 일들은 덕이 되지도 않으며, 질서도 없는 것이기에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율법에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여자들은 이러한 질서에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녀간에는 인격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직분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주신 것은 그들대로의 삶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차에 돕는 관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는 서로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임을 잊지 않고 사랑 안에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영적 의미

성경은 여자를 교회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교회상황이 여자들로 인하여 무질서하고, 덕이 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여자는 남편(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실의 생활을 되돌아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죄악 속에서 인류는 타락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남자들의 대부분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들에게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더욱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자를 교회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임의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의 당부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하여 신령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면 진리를 알지 못한 자임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을 계속해 왔던 방언에 대해서도 예언을 계속하지만 방언도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매사에 극단적인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매사에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만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제와 질서대로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이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고린도전서 15:1-11)

바울은 지금까지의 각종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난 후에 그의 신앙적인 결론에 이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과 사도로서의 자격,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수고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까닭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파당으로 인하여 그의 말에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감회를 갖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사도라 부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핍박자였고,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격 없고, 쓸모 없고, 연약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장소를 가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히려 외형의 건물, 강단의 목사, 성도의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 속에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은 자 바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고, 바울의 겸손은 그가 핍박자로서 도무지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더불어 오늘의 사도의 위치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바와 같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돈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돈으로, 명예는 명예로, 권세는 권세로, 지식은 지식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도 자신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구나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본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는 이미 겸손의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 지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현재의 모습은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끝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고, 자신은 매일 병마와 굶주림, 낮은 도시에서의 외로움과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논증(고린도전서 15:12-19)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는 곧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곧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아직도 이 땅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에게 보증이 되는 부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현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육신은 곧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육신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육신이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소는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좀 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힘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 일이 지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영을 받은 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곧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자는 마치 친목단체에 소속되어서 여가를 즐기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으며, 헌신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영생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자는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이 일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는 자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일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이 세상 삶에서만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애를 쓰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차 되어 질 일들(고린도전서 15:20-28)

바울은 이미 부활이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순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말하면서 보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는 성도의 부활, 셋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 40 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부활 전에는 지옥에 다녀오셨으며,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대신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존재하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도 역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의 일점일획도 온전히 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안에 계심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에게 분명한 희망을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의 부활

첫 사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영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았지만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얻어진 사망은 죄 없이 깨끗해야 영생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인데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는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의 몸에서 자라납니다. 이미 죄의 씨를 받아 자란 그가 죄인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구원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분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생명)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맞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상황에 언제나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거짓 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멸망 받을 원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 편에서 아삽이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행통한데 우리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느냐고 호소하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고린도전서 15:29-34)

요한의 때나 예수님의 때에 행했던 의식은 침례였습니다. 이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예식인데 오늘날에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례예식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지만 침례는 몸을 물에 담금으로써 죽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의식은 바로 이 침례를 말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된 몸이 죽지 않고 있다면 결코 사망의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형식의 신앙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매일 침례를 받고 살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구원받는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여 행하는 예식임과 같이 침례의식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형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예식이고, 성찬식이며, 그

외에도 주일성수나 십일조 등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그 행위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과 같이 그 의미를 알아 날마다의 삶에 적용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씻어 주셨으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깨어 근신하자는 자세와, 다른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정욕을 누리면서 산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의 물질적 부요와, 건강과, 형통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고통 당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이 고통 당하는 원인을 파악해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일부 샅꾼목자들은 이 일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목양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주의 일을 게을리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면 그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주변의 양들에게 '너희도 게으르면 저렇게 될거야'라고 협박을 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주변 어느 곳이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과연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 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빈약한 말씀을 가지고 영의 일들을 제대로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의의 일들을 위해 힘써야 하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사단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깨어있으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삶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 핍박자들이 따라다녔고, 그는 재판정 앞에서 수 차례의 사형을 확정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몸(고린도전서 15:35-49)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의문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떠한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약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에 대하여 만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거할 처소가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는 죽어야 되살아납니다.

땅에 떨어진 씨는 썩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일 길가에 뿌려져서 썩지 않고 있다면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게 되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을 때,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육신의 약해져 감을 인하여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안에 사는 우리는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곧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또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곧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다시 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흠에 묻혀 썩어짐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 시에 남는 것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몸의 영광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세상에서 행한 믿음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면류관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면류관이 어떤 열심이나 헌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삶의 척도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의 모양들은 변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부활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침착해지지 않고, 또한 포악한 사람이 선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태도, 삶의 자세들 모두가 부활의 몸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의 몸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의 외적인 상황 모두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상상을 초월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물질의 부요나 명예, 권세, 지식, 건강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의 훈련을 해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어질 몸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위하여 지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고급 사우나와 미용 헬스, 건강 식품 등입니다. 이들이 육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지혜로움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연보에 대하여(고린도전서 16:1-9)

연보의 문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조차 십일조를 포함한 각종 성전 세 등을 율법에 명시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은 것을 보아도 물질의 문제는 시대와 관계없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힘든 일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연보의 규모나 의무로서의 연보를 말하려 하지 않고 방법만을 말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보 역시 믿음의 분량과 관계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연보

오늘날에는 너무도 많은 연보의 종류가 있어서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연보함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않고 일천 번제, 각종 집회 등을 통하여 연보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연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교회에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각종 집회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심어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많은 물질을 두고 음성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 매주일 첫 날 곧 주일에 정기적으로 연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결코 감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감정적으로 연보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각종 집회를 통하여 물질적인 능력이 없을뿐더러 믿음 또한 없는 자에게 연보를 강요하여 연보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명목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를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연보만이 가장 모범적인 연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 교회는 주일 연보의 비중이 점차 사라져가고 십일조, 감사, 건축헌금 등 구약의 율법을 재생시켜서 연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성도들의 연보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혹은 강요에 의한 연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여 매주일 첫날, 즉 주일에 연보 해야 합니다.

준비 된 연보

오늘날 성도들에게 연보를 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드리면 갑절, 혹은 30 배, 60 배, 100 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없는 중에서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얻은 대로'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 분의 일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연보의 정도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자원함으로 드려서 저축해 둘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한가지 일은 자신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유명 강사가 오면 연보가 많이 걷혀 지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결코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이 시대에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의 세대를 내다보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된 임무가 연보를 드린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을 사전에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에서 저축된 연보가 예루살렘교회에 보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당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도전되어지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연보가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쓰여질 연보

오늘날에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닮기 위해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연보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의 연보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전도자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보는 복음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목자와 성도의 관계(고린도전서 16:10-12)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면서도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피차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관계가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피차에 필요성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목자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고 목자는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우리에게 가두어 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많은 양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양들의 우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은 서로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만이 피차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갖는 문제들은 미자립 교회는 물질적인 어려움, 전통 있는 큰 교회는 성도들의 사임압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사역의 본질을 잊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노라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끊임없이 왜곡되어 가고 점차 삶의 경건성이 사라져 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제가 있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자녀교육의 문제, 생계 문제, 성도와의 갈등, 노후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도록 놔둔다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영향이 성도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명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염려거리를 제공하는 행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차에 편안함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마주하는 생활이야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역의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대부분을 예배당 건축, 교회 정치 참여, 지역 사회 단체의 참여 등에 소비합니다. 물론 그들은 입으로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너무도 바쁜 현대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 인색하고,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인색하게 대하며, 심지어는 매장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점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는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세(고린도전서 16:13,14)

오늘날의 성도는 지나치리만큼 수비적인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함 등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일에 대하여 당장의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애를

씹니다. 특별 기도나 금식을 통해서, 혹은 유명한 부흥강사를 찾아 다니며 자신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아울러 더욱 행복한 삶으로의 인도를 받기 위해 애를 씹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비만을 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깨어있는 자세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졸며, 자고 있다면 그는 적군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적군은 언제 어느 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군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을 가장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탄이 우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율법으로 향하게 하며, 여러 가지 이방신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바꾸고, 집집마다 교패를 붙임으로 부적을 대신하도록 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함으로 이방종교의 경을 읽는 행위를 대신하도록 하며, 근거도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 이방 종교의 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바꾸어 축제를 벌이도록 하고,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풍습을 만들어 이방 여신을 섬기던 풍습을 교회 안으로 행하도록 하는 등 너무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깨어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싸움하는 군사가 힘이 없고, 자신 없는 자세로 서 있다면 그는 이미 싸움에서 패배한 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다면 결코 상대가 함부로 덤벼들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꾼은 결코 힘이 있거나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질 수 없다는 자세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보다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분명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다른 특징 없이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즐기고, 마시고, 취해서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패배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피도 흘리고, 많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물질, 건강, 사업, 가정 등을 파괴시켜 가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또한 영원한 승리를 위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는 여자와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체력이고, 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제거해 버린다면 남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곤비해져 있다면 그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유지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충분한 식사와 휴식, 적당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것과 묵상하는 것,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있었을 때, 영적 건강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왕자에게 칼을 내밀어서 아버지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굴복한다면 그는 순간 왕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수없이 굴복하기를 요구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굴복하거나 부인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다 자신감 있는 자세로 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고린도전서 16:15-24)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되어진 일들을 소상히 아뢰고 바울로부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들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하여 기뻐했고(17) 오히려 그의 힘든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일할 것과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로서 모든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강조된 말씀이었으며, 그들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가 갖는 의미를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종의 의미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15,16)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복종은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의 상관으로 모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 교회에서도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18).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급을 정하고 심지어 치리를 해대는 일까지 빈번합니다. 주님은 가라지라 할지라도 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마 13:29) 추방시키고 심지어는 목사들끼리도 파직을 시키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일들은 과거에 가톨릭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교회법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일들을 통해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피차 격려하여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종의 정신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를 사랑할 것을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사랑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야 하는 더욱 큰 이유는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임하시기 때문에 신부 된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집도 마련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과 결혼식장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장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혹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지옥의 생활이 따로 없을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와 아름다운 옷들과 면류관, 세상에서는 신부의 몫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 된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마 25:1-13).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표적으로부터 말씀으로,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해 주고 권면을 하는 일들은 목회자들의 몫이 되고만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피차 문안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몸의 일부분만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있다면 온전한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피차에 돌아봄으로 몸을 더욱 건강하고 조화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안하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